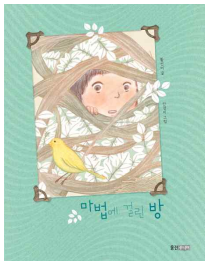


마법에 걸린 방

* 글: 황선미
* 그림: 안경미
* 출판사: 웅진주니어
* 정가: 10,000원
* 분량: 157쪽
* 대상: 초등 5학년

· 책 소개

이 책에는 황선미 작가가 희망으로 써 낸 우리 이웃들의 풋풋한 이야기 여덟 편이 담겨 있습니다.

• [돌아라 요요]: 둘도 없는 단짝이지만 대장과 쫄병 사이처럼 지내던 철이와 동연이가 요요 대회를 눈앞에 두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이야기.

• [산을 오르며]: 시골에서 전학 온 아이 경수가 자신을 소외시키는 아이들을 오히려 도와주며 진정한 우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

• [네 번째 행운]: 아빠의 실직을 두고 갈등을 겪지만 결국 진한 가족애를 확인하는 이야기.

• [할아버지 저예요]: 아빠가 만들어 주신 연을 날리며 아빠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불러 보는 이야기.

• [생일 나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언니에 대한 아픔을 절절히 그려 낸 이야기.

• [마법에 걸린 방]: 자기 내면에 갇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소녀 은이가 벽에 그려진 물푸레나무와 대화하고 나무에서 나온 카나리아를 바깥 세상으로 날려 보내는 이야기.

• [까치 우는 아침]: 병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위험한 고비를 맞는 누렁이가 들려 주는 이야기.

• [구슬아 구슬아]: 소영이라는 소녀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겪는 고양이의 성장 모습과 습성의 변화가 섬세하게 그려진 작품.

· 주요 독후활동

마법에 걸린 방

책 속으로	① 돌아라 요요 / 산을 오르며 ② 네 번째 행운 ③ 할아버지 저예요 / 생일 나무 ④ 마법에 걸린 방 ⑤ 까치 우는 아침 / 구슬아 구슬아
토론&논술	누렁이를 방치한 사람들
창의융합	책 소개 카드뉴스 만들기

[독서워크북]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작가의 말

-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그림과 글을 살펴봅시다. / 작가의 말을 읽어봅시다.

1.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본 첫인상은 어떤가요?

⇨

2. 책의 제목 '마법에 걸린 방'에서 이 방은 어떤 마법에 걸린 것일지 상상해보세요.

⇨

3. 앞표지 그림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새를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의 속마음을 상상해보세요.

4. 다음은 책의 뒤표지에 적힌 글로, '작가의 말'의 일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읽은 동화 중에서 가슴 속에 희망이 싹 트고 자라나는 느낌이 들었던 작품을 소개해보세요.

"……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작은 희망밖에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고
거기서 얻은 느낌을 씨앗 삼아 동화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여덟 편의 동화도 그렇게 얻은 희망의 씨앗으로 써낸 이웃의 이야기들입니다.
씨앗은 열매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와 뿌리, 열매의 모든 것을 간직한 놀라운 것이지요.
내가 발견한 씨앗이 어떤 사람들의 가슴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희망이 된다면 좋겠어요 ……."
-작가의 말 중에서

⇨

독서 중

※『마법에 걸린 방』에 실린 여덟 편의 작품을 읽으면서 본문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1. 책에 나오는 다음 문장들을 참고하여, 밑줄 친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 명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①구명줄을 잡았다.
- 마치 어제 일을 다 잊었다는 듯 ②능청 부리는 언니가 이상해서 나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 엄마는 ③반짇고리에서 실 한 타래를 꺼내 왔다.
- 아이가 ④질겁을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 할머니가 방에서 ⑤보퉁이를 안고 나왔다.
- 순을 잘라 주면 잎겨드랑이에서 ⑥새순이 나오는데, 그러면 모두 다 훨씬 더 튼튼해지지.
- 아빠가 잎사귀도 없고 손가락 굵기밖에 안 되는 ⑦묘목 두 그루를 자전거에서 풀어 보였다.
- 나는 나무의 ⑧밑동에 매달려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 키가 천장에 닿으니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지 등이 굽기 시작하더니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⑨삭정이가 생겨났어요.

① 구명줄	•	•	㉠ 나무 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
② 능청	•	•	㉡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③ 반짇고리	•	•	㉢ 물건을 보에 싸서 꾸려 놓은 것
④ 질겁	•	•	㉣ 속으로는 엉큼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태도
⑤ 보퉁이	•	•	㉤ 뜻밖의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람
⑥ 새순	•	•	㉥ 바늘, 실 , 골무 .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
⑦ 묘목	•	•	㉦ 새로 돋아나는 순
⑧ 밑동	•	•	㉧ 배위의 사람이 붙잡고 걷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갑판 위에 쳐 놓은 줄
⑨ 삭정이	•	•	㉨ 옮겨 심는 어린 나무

2. 아래 문장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보기] 무성하게 외면한 퉁명스레 앙상한

① 사 갖고 온 금색, 은색 종이만 펴 놓으며 일부러 ( ) 말했다.
② 한겨울에 ( ) 자랐던 고구마 줄기가 거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③ 갑자기 왜 이러나 놀라웠지만 철이는 요요를 ( ) 채 쌀쌀맞게 말했다.
④ 뭐든지 먹으란 말이야. 뼈만 ( ) 너를 볼 수가 없어.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돌아라 요요 / 산을 오르며

※ (1~3) <돌아라 요요>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철아, 나 저기 나갈 거야." / "뭐? 네가?"
철이는 동연이를 빤히 보았다. 동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혼란스러웠다. 그러자 동연이가 유리문의 글씨를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다.
"요, 요, 대, 회, 나갈 거라니까. 요요라면 나도 좀 하잖아."
"……." 동연이가 대회에 나가겠다니. 생각지도 않은 말이었다.
철이는 당황해서 동연이를 앞질러 성큼성큼 걸었다. 요요를 빌려 달라는 말을 꿀꺽 삼킨 채. 뒤에서 동연이가 불렀지만 대꾸도 않고 집으로 와 버렸다.
"나도 네가 하는 거 하나쯤은 잘하고 싶었어. 같이 하는 거 말이야. 난 졸병이 아니라 친구니까."
철이는 아무 말도 못 했다. 요요를 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없었다.

(나) "동연아! 잠깐만!" 동연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철이는 금방 말을 못하고 한참동안 숨만 내쉬었다.
"360도 회전은 말이지, 그걸 잘하려면……"
철이는 동연이의 손에서 요요를 빼냈다. 동연이는 가만히 있었다.
"대회에 나가려면 360도 회전은 기본이야. 그걸 못하는 애들은 없을 거다. 오토바이 기술이라는 것도 있어. 그걸 할 줄 아는 애는 아마 없을걸. 가르쳐 줄게."

1. (가)에서 동연이가 요요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해보세요.
⇨

2. (가)에서 철이가 밑줄 친 부분처럼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3. (나)에서 철이가 동연이에게 요요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

4. 다음 글은 <산을 오르며>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돌아라 요요>의 철이라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호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써보세요.

사투리 좀 쓴다고 이름 대신 꼭 '촌놈'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다. 앞으로도 무슨 꼬투리든지 잡아 집적거릴 게 뻔하다. -중략-
황울새로 가는 버스에서 경수는 명호와 앉았다. 번호대로 앉으니까 경수는 성주 아니면 명호랑 앉게 돼 있었다. 명호가 성주와 앉으려고 했지만 대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촌놈이랑 앉으란 말이지."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네 번째 행운

※ (1~3) <네 번째 행운>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난 포기 안 해. 그건 정말 싫어! 엄마도 처음에는 주인공이라 잘 됐다고 했잖아." / "연극 주인공이야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우리 사정이 나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중략-

언니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 나가 버렸다. 철없이 구는 언니가 얄밉지만 한편으로 가엾기도 했다. 자존심 강한 언니가 주인공을 포기하고 난쟁이 역을 맡는다면 무척 괴로울 테니까.

(나) 나는 한숨을 쉬며 안방으로 가서 언니가 화장대 위에 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편지였다.

> 아빠! 많이 힘들죠? 나는 벌써부터 알았어요. 아빠가 회사에 안 나가시는 거요. 백설 공주 역을 맡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가 알았어요. 처음에는 겁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서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빠가 우리를 미워하게 될까 봐서요.
>
> 이제는 드레스 사달라고 안할게요. 아빠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연극은 안 할 거니까 드레스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나는 아빠 공주예요. 그렇지요?
>
> 공원에 가서 아빠를 봤어요. 친구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빠였어요. 아까는 창피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한 일인걸. 공짜로 남의 머리를 깎아 주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
> 난 괜찮아, 아빠.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편지에 눈물이 떨어져서 얼른 옷소매로 닦았다. -중략-

아무래도 나는 연극을 할 자신이 없다. 아무리 못된 왕비라고 해도 이런 언니를 미워하지 못할 테니까. 백설 공주보다 더 예쁘고 속 깊은 언니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길 테니까.

1. 언니가 연극을 안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드레스를 사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가), (나)에서 언니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	
(나)	

3. 언니의 편지를 받은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빠 입장에서 답장을 써보세요.

[독서워크북]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할아버지 저예요 / 생일 나무

※ (1~3) 다음 글 (가), (나)는 <할아버지 저예요>의 일부이고, (다), (라)는 <생일 나무>의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제일 인쇄소는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빠에게 이어졌다. 아빠는 마흔 살이 되도록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인쇄소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다. 그런 인쇄소가 남의 것이 되는 것도 괴로운데, '제일 인쇄소'란 이름까지 없어진다면 모든 걸 잃는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아빠가 그런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상민이도 웬만큼 알 건 다 알았다.

"하필 이럴 때 뭐 하러 연을 만들려고 하신담."

(나) "할아버지는 연 만드는 법을 일부러 가르치질 않으셨어. 옆에서 보다가 내가 그냥 알았지 .사실, 그때 그렇게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았는데……." -중략-

상민이는 아빠가 하늘인지 연인지를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모습을 슬쩍 보았다. 그리고 지금 아빠가 할아버지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 "새벽 시장에 갔다 왔어. 감나무야." 아빠가 잎사귀도 없고 손가락 굵기밖에 안 되는 묘목 두 그루를 자전거에서 풀어 보였다. 나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였다.

"뭐 하게요?" / "심지. 생일 나무야." / "어디에 심어요? 우리는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방금 집주인을 만났는데 마당에 심어도 좋다고 하시더라. 심을 데가 있으니 잘 됐잖아. 생일 선물로 샀는데 심을 데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이거 심고 같이 병원 가자."

"그럼, 나중에 이사 가면 못 보잖아요."

"그럼 어때, 잘 크면 되는 거지."

아빠가 씩 웃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 (가), (나)에서 상민아버지와 (다), (라)에서 '나'의 아버지가 각각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행동을 정리해 보세요.

인물	처한 상황	그에 따른 행동
상민아버지		
나의 아버지		

2. (나)에서 상민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써보세요.

⇨

3. (다)에서 아빠가 쌍둥이 생일 선물로 감나무를 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④ 마법에 걸린 방

※ (1~2) <마법에 걸린 방>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은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다른 것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은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두는 대상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

2. 은이와 은이의 새부모님은 서로에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다음 글 (가), (나)를 참고하여, 은이와 은이의 새부모님이 각자 지니고 있는 불안함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가) 새엄마가 나를 입양한 것이 두려워요. 예쁘고 말 잘하는 애들을 제쳐 두고 언제나 외톨이, 꿀 먹은 벙어리로 알려진 나를 선택했잖아요. 선택되려면 남보다 나아야 할 텐데요.

"내가 쓸모없는 애라는 걸 금방 알 거야."

"그럴까? 내 생각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은이를 찾아낸 것 같은데." -중략-

"새엄마와 새아빠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오래전에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대. 네가 오기 전까지도 그분들은 이방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곤 했어.

"가엾어라!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기가 이 방 주인이었겠지?"

"그랬을 테지.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아기를 잊으려고 해.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은이를 입양했을 거야. 아기와 은이는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대."

"정말? 그래서 날 데려왔대?" 나는 더욱 두려워졌어요. 아기와 같은 때에 태어났다고 선택되다니. 양부모님은 아기를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를 보면서 아기 생각을 하겠지요. 그리고 금방 실망할 테지요. 나는 그 아기가 아니니까.

(나) 주방에서 새엄마와 새아빠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하는 걸 여태 한 번도 못 본걸요. 전문가와 상담하든지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는 방법 밖에 없어요. 내 생각엔, 은이 마음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그게 낫겠군. 자기 안에 갇힌 데다가 잘 먹지도 않으니."

"가족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갑자기 몸이 떨렸어요. 내가 다시 버려지도록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중략-

"뭐든지 먹으란 말이야. 뼈만 앙상한 너를 볼 수가 없어. 뭘 좀 먹어야 살이 붙을게 아냐? 내가 두 눈을 뜨고 딸을 또 잃어야 되겠니?" 새엄마가 화내는 걸 처음 보았어요.

은이의 불안함	
새부모님의 불안함	

독서 후 책 속으로 ⑤ 까치 우는 아침 / 구슬아 구슬아

※ (1~3) 다음 글 (가)는 <까치 우는 아침>의 일부이고, (나)는 <구슬아 구슬아>의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 "쯧쯧, 안 되려나 보다. 아무래도 내 죄가 크지."

할머니가 누렁이를 쓰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누렁이를 들어다 담 밖에 놓았다.

"네가 집 안에서 죽으면 환자한테 좋을 리 없어. 어쩌겠냐. 산사람 생각을 해야지. 미안하다."

할머니는 자루를 꺼내다가 누렁이를 덮어 놓고 들어갔다. -중략-

깟깟깟. 이른 아침부터 까치가 울었다. 반갑게 찾아올 손님은 없지만 까치 소리가 하도 오랜만이라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었다. -중략- 할아버지는 방문을 닫으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렁이가 쓰러질 듯 비척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다리 하나를 못 써서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았지만 누렁이는 용케도 쓰러지지 않고 마당까지 왔다.

"저런, 누렁아!" 할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반가운 손님을 맞느라 신발도 미처 못 신은 채였다. 까치 우는 아침이다.

(나) "내가 맛있는 걸 얼마든지 주는데, 쥐를 왜 먹어?"

"고, 고양이니까" -중략-

소영이는 방으로 가서 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구슬이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

"다시는 쥐를 잡지 말랬잖아!"

"야옹!" 구슬이가 놀라서 펄쩍 뛰어 물러났다. 소영이는 자를 들고 쫓아갔다. 구슬이가 요리조리 내빼는 바람에 소영이는 헛손질만 했다. 속상하고 약 올라서 울음이 터졌다.

"그냥 예쁘게 있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빨리 이리 와!"

1. (가)에서 까치 우는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누렁이에게 정을 느낀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였나요? ⇨

2. (가)에서 할머니가 누렁이를 대하는 태도, (나)에서 소영이가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또, 두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공통점을 파악해보세요.

할머니가 누렁이를 대하는 태도	
소영이가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	
두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공통점	

3. (나)에 나타난 소영이와 같은 생각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키울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 말을 써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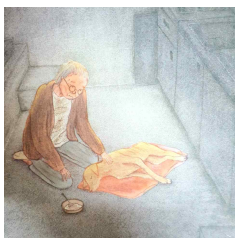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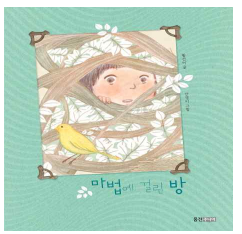
독서 후 토론&논술_ 누렁이를 방치한 사람들

※ 다음은 <까치 우는 아침>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누렁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동안, 누렁이는 굶주리고 다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누렁이를 방치한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해보세요.

• 빈집을 지키며 사흘이나 굶는 동안 누렁이는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너까지 살필 여유가 없구나. 우리가 올 때까지 어떻게든 견디고 있어라." 할머니가 보퉁이를 이고 대문을 나갔다.
• 일순네는 할머니가 떠난 뒤에 꼭 한 번 왔다. 그날 찬밥 덩어리를 얻어먹은 뒤로는 여태 음식 냄새를 맡아 보지 못했다. 납작 엎드려서 대문 밑으로 나가 볼 궁리도 했다. 그러나 머리도 빠져나갈 수 없게 틈이 좁았다. 누렁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집 안을 빙빙 돌다가 지쳐 버리곤 했다. 못 먹은 뒤부터 추위를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다.
• 영선이가 대문을 지쳐 두고 가서 누렁이는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대문이 잠기지 않아 다행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대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다. 쥐약을 놓는 날에도 누렁이에게 목줄을 채울 뿐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대문을 잠그는 바람에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다.
• 누렁이가 집에 들어가 웅크리고 지낸 지도 여러 날 되었다. 불도그에게 물린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빈속인데도 누렁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추운 것도 몰랐다. 상처가 쑤시고 아프더니 어느새 그것도 무뎌졌다.
• "어머나! 누렁이가 왜 이래요?"
"다쳤구나. 아직 살아 있기는 한데, 원 세상에, 여러 날 굶은 모양이다."
"일순네 아줌마가 밥 안 챙겨 줬나 봐."
"그 집 딸이 해산을 했다지 뭐야. 그동안 서울 가 있었단다. 아유, 그러면 다른 집에 부탁 좀 해 줄 것이지."
• 말라 버린 목구멍이라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니까 할아버지는 끝내 한숨을 쉬고 말았다.
"어쩌자고 산 목숨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할머니와 영선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독서 후 창의융합_ 책 소개 카드뉴스 만들기

※ 이 책에 실린 여덟 편 동화의 삽화 그림을 골고루 포함하고 작가의 말을 조합해서 책 소개 카드뉴스를 만들어봅시다. 빈칸에 넣고 싶은 삽화를 본문에서 골라 카드뉴스를 완성해보세요.

① 나는 사람들과 작은 희망밖에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고 <돌아라 요요>	② 거기서 얻은 느낌을 씨앗 삼아 동화를 쓰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며>	③ 여기 여덟 편의 동화도 그렇게 얻은 희망의 씨앗으로 써낸 <네 번째 행운>
④ 이웃의 이야기들입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⑤ 씨앗은 열매보다 크지 않지만 <생일 나무>	⑥ 나무와 뿌리, 열매의 모든 것을 간직한 놀라운 것이지요. <마법에 걸린 방>
⑦ 내가 발견한 씨앗이 어떤 사람들의 가슴에서 싹이 트고  <까치 우는 아침>	⑧ 자라나 희망이 된다면 좋겠어요. <구슬아 구슬아>	⑨ 황선미 단편동화집 『마법에 걸린 방』 

■ 독서 전

1. (예시답안)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2. (예시답안) 그 방에 있으면 행복한 추억이 떠오른다거나 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법일 것 같다.
3. (예시답안) 깃털이 너무나 고운 노랑빛이네. 저 새는 어디에서 온 걸까?
4. (예시답안) <잃어버린 자전거>, 최인혜 지음 / <떡볶이는 달다>, 홍민정 지음

■ 독서 중

1. ① 구명줄-ⓞ, ② 능청-ⓔ, ③ 반짇고리-ⓗ, ④ 질겁-ⓑ, ⑤ 보퉁이-ⓒ
   ⑥ 새순-ⓐ, ⑦ 묘목-ⓧ, ⑧ 밑동-㉠, ⑨ 삭정이-㉡
2. ① 퉁명스레 ② 무성하게 ③ 외면한 ④ 앙상한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돌아라 요요 / 산을 오르며

1. (예시답안) 철이가 하는 것 하나쯤은 같이 해서 철이의 졸병이 아니라, 철이와 동등한 친구 관계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2. (예시답안) 동연이의 요요를 빌려서 요요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동연이가 요요대회에 나간다고 하는 바람에 동연이에게 요요를 빌리지 못하게 되어서
3. (예시답안) 자신과 동연이의 관계를 대장과 졸병으로 생각하게 된 것에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요요대회에 나가려는 동연이를 도와주기로 했을 것이다.
4. (예시답안) 내가 마음속으로 친구를 좀 낮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 그걸 나중에서야 깨닫고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몰라. 명호 너도 이제부터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친구를 낮잡아 보는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노력해봐.

◎ 책 속으로 ② 네 번째 행운

1. (예시답안) 언니는 아빠가 실직하고 나서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식들을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그래서 아빠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무리하게 드레스를 사달라고 했다.
2. (예시답안)

(가)	언니는 철없고 얄밉지만 안타깝기도 하다.
(나)	언니는 마음이 따뜻하고 속이 깊다.

3. (가이드) 아빠가 실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딸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게 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아빠를 이해해 주어서 고마운 마음, 가족 모두 마음을 합하고 힘을 내서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자는 내용을 담도록 합니다.
답안 생략.

◎ 책 속으로 ③ 할아버지 저예요 / 생일 나무

1. (예시답안)

인물	처한 상황	그에 따른 행동
상민아버지	제일 인쇄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됨	상민이에게 연을 만들어 줌
나의 아버지	딸이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됨	감나무를 생일 나무로 심음

2. (예시답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친구를 사귀는 방법,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방법 등
3. (예시답안) 쌍둥이 딸들이 두 그루 감나무처럼 함께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서

◎ 책 속으로 ④ 마법에 걸린 방

1. (예시답안) 나무(물푸레나무), 새(카나리아)
2) (예시답안)

은이의 불안함	새부모님이 자신에게 실망해서 새부모님에게 버림받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새부모님의 불안함	은이가 새 가정에 마음을 붙이지 못해서 잘 못 지내다가 먼저 잃은 아기처럼 은이 또한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 책 속으로 ⑤ 까치 우는 아침 / 구슬아 구슬아

1. 반가운 손님
2. (예시답안)

할머니가 누렁이를 대하는 태도	아프신 할아버지의 건강에 해가 될까봐 죽어가는 누렁이를 담 밖으로 내보낸다.
소영이가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	구슬이의 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고양이의 모습만을 요구한다.
두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공통점	동물의 상태나 습성을 이해하기보다 사람이 편리한 대로 생각한다.

2) (예시답안) 동물들은 동물마다의 습성이 있다. 이러한 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요구하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을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토론&논술_ 누렁이를 방치한 사람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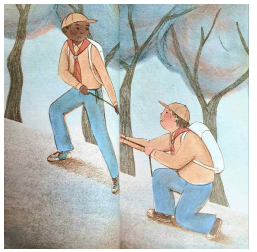
• 할머니, 영선이, 일순네가 각각 사람들의 일만 우선으로 생각하고 신경 쓰느라고 누렁이를 굶게 하고 어떤 상태인지 살피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무신경함을 비판하도록 합니다. 또,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 때는 동물까지 살피기 힘들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비판해봅시다.

•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일로 인해서 누렁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 창의융합_ 책 소개 카드뉴스 만들기

(예시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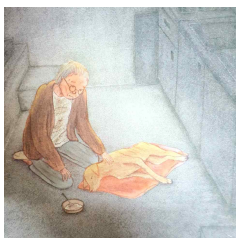
<table>
<tr>
<td>① 나는 사람들과 작은 희망밖에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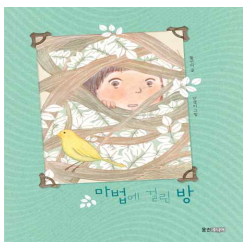
<돌아라 요요></td>
<td>② 거기서 얻은 느낌을 씨앗 삼아 동화를 쓰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며></td>
<td>③ 여기 여덟 편의 동화도 그렇게 얻은 희망의 씨앗으로 써낸

<네 번째 행운></td>
</tr>
<tr>
<td>④ 이웃의 이야기들입니다.

<할아버지 저예요></td>
<td>⑤ 씨앗은 열매보다 크지 않지만

<생일 나무></td>
<td>⑥ 나무와 뿌리, 열매의 모든 것을 간직한 놀라운 것이지요.

<마법에 걸린 방></td>
</tr>
<tr>
<td>⑦ 내가 발견한 씨앗이 어떤 사람들의 가슴에서 싹이 트고
 
<까치 우는 아침></td>
<td>⑧ 자라나 희망이 된다면 좋겠어요.

<구슬아 구슬아></td>
<td>⑨ 황선미 단편동화집 『마법에 걸린 방』
  </td>
</tr>
</table>